

더불어 민주당 **민생연석회의**의 보도자료

공동의장 이재명·인대연 / 수석부의장 윤후덕

보도일시	2025. 3. 17. (월)	배포일시	즉시 배포
사무국	더불어민주당 을지원국 02-6788-3631	문의	윤후덕의원실 강지영 비서관 02-6788-6904

‘주택 세입자 점유기간 10년 보장’ 정책과제에 대한 민생연석회의 입장

민생연석회의 민생의제 발표회 내용 중에서 “주택세입자 권익보호 강화 :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주택 세입자 점유기간 10년 보장 후 단계적 무기계약 전환”이 언론으로부터 주목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

이 내용을 민생의제로 제안하신 분은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대변하여 이러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민생연석회의는 이런 의견을 받아 의제로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것일뿐, 당의 공식 입장이거나 정책이 아닙니다.

이번에 논란이 된 정책과제를 포함,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20대 민생의제와 60대 정책과제는 민주당 정책위에서 정책과제별 타당성을 검토합니다. 이후 선별된 과제가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에서 확정되면, 최고위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(더불어민주당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54조 제10항).

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지난 12일 행사 당일 민생연석회의 제안은 “의제다. 공약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걸 집행할 과제가 아니라 논의해야 할 의제다.”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.

또 오늘(17일) SNS를 통해 “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,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.”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민생연석회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.

민생연석회의는 향후 민생 의제 논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, 지속적으로 언론 및 외부와 소통하겠습니다.